

전북 - 울산, 내달 25일 맞붙

리그 4연패나
정상 탈환이나K리그1 파이널라운드 일정 확정
우승 향한 중요한 일전 예고

울산 현대의 15년만의 정상 탈환이나, 전북 현대의 사상 첫 리그 4연패나.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확정됐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울산과 전북은 10월 25일 26라운드에서 대결한다. 우승 향한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2일 하나원큐 K리그1 2020의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규 22라운드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6위는 파이널A, 7~12위는 파이널B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선두 울산은 비롯해 전북, 포항 스틸러스, 상주 상무, 대구FC 그리고 승격팀 광주FC가 파이널A에서 대결한다.

파이널B에는 전종의 명가 FC서울과 수원 삼성을 포함해 강원FC, 성남FC, 부산 아이파크, 인천 유나이티드가 속했다.

파이널A에선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위해서, 파이널B에서 K리그1 잔류를 위해서 경쟁한다.

오는 26~27일 23라운드를 시작으로 최종 27라운드는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열린다. 팀당 5경기를 치르게 된다.

울산과 전북의 대결이 큰 관심을 모은다. 정규 라운드에서 울산이 선두를 지켰지만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전북에 모두 져 달아날 기회를 놓쳤다.

울산(승점 50)과 전북(승점 48)의 승점차는 2에 불과해 세 번째 맞대결이 운명의 한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дер비'는 10월18일 25라운드에 열린다.

파이널B에선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서울과 수원이 슈퍼매치를 갖는다. 하위그룹에서 슈퍼매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6일 열린다.

K리그1 잔류를 두고 경쟁 중인 수원과 최하위 인천은 10월 4일 24라운드에서 격돌한다.

한편, 파이널B의 최종 27라운드는 10월31일 오후 3시, 파이널A의 27라운드는 11월1일 오후 3시에 동시에 열린다. /뉴시스



노바크 조코비치(오른쪽)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후 디에고 슈와르츠만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는 결승전에서 슈와르츠만(15위·이탈리아)을 세트스코어 2-0(7-5 6-3)으로 꺾고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 통산 36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과 동률이던 최다 우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

조코비치, 돌풍의 슈와르츠만 꺾고 우승 차지

남프로테니스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대회 단식 결승서 2-0으로 꺾어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정상 맛보

노바크 조코비치(33·세르비아·1위)가 디에고 슈와르츠만(28·아르헨티나·15위)의 돌풍을 잠재우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슈와르츠만을 2-0(7-5 6-3)으로 꺾었다.

조코비치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맛봤다.

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에서 개인 통산 36번째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통산 최다 우승 순위에서 라파엘 나달(34·스페인·2위)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다.

해당 순위에서 조코비치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있던 나달은 이번 대회 8강에서 슈와르츠만에 0-2(2-6 5-7)로 패배했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메이저대회 바로 다음 등급의 대회로, 1년에 9차례 열린다.

클레이코트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기분 좋게 이달 27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에 나서게 됐다.

아울러 이달 초 US오픈 16강에서 경기 도중

짜증을 내며 천대 공이 선심의 목에 맞아 '황당 실격패'를 한 충격도 다소 털어냈다.

조코비치는 올해 치른 32경기에서 31승 1패를 거뒀다. 유일한 패배가 US오픈에서의 실격패다.

슈와르츠만은 클레이코트의 최강자 나달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조코비치를 넘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조코비치는 슈와르츠만의 상대전적에서 5전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게 됐다.

조코비치는 1세트 게임스코어 0-3으로 끌려갔으나 이후 내리 4게임을 잡으며 전세를 뒤집었고, 그대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도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던 조코비치는 곧바로 슈와르츠만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분위기를 가져왔고, 게임 스코어 3-3으로 맞선 상황에서 내리 3게임을 따내 승부를 갈랐다.

조코비치는 "US오픈에서 실격패를 당한 뒤 충격을 받았고, 4~5일 동안 기분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며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큰 대회에서 우승해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함께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서는 시모나 할레프(29·루마니아·2위)가 우승했다. /뉴시스

전북도민체전, 내년 5월 익산시

2022년 체전 개최지 '남원시' 확정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내년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날 제4차 생활체육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열리는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대회는 익산시 일원에서 열리며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도내 14개 시군 38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개회식은 14일 오후7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폐회식은 16일 오후5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날 생활체육위원회는 2022년 전북민체육대회 개최지도 남원시로 확정됐다.

당초 남원시는 올해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논의 끝에 2020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와 2020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0월 순창에서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11월 정읍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했다. /정은성 기자

손흥민, BBC 'EPL 이주의 베스트 11' 선정

사우샘프턴전 4골로 토트넘 5-2 역전승 이끌어내

손흥민이 영국 BBC가 뽑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22일(한국시간) 이주의 팀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사디오 마네(리버풀),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과 함께 3-4-3 포메이션의 공격수로 낙점했다.

예견된 결과다. 손흥민은 20일 사우샘프턴전에서 혼자서 4골을 몰아넣으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트트릭 역시 2015~2016시즌 EPL 입성 후 최초다.

각종 매체로부터 평점 10을 싸늘히 한 손흥민은 BBC 이주의 팀이라는 영예까지 안았다.

베스트 11의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뉴시스



Nice to meet samyang

축! 전주매일 창간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천연 유래 Beauty & Personal Care 소재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

삼양홀딩스 | 삼양사 | 삼양바이오팜 | 삼양패키징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 삼양이노켄 | 삼양화인텍크놀로지 | KCI | 삼양에프엔비 |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EP형가리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삼양EP베트남 | 삼양바이오팜USA | 양영수당재단